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상월 보선 대종사

“남 돕는 게 나를 돕는 길…진정한 보살 돼라”



상월 보선 대종사는… 1966년 용암사서 천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2년 통도사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문경 봉암사와 순천 송광사, 양산 통도사, 해남 대흥사 등에서 오랜시간 수선안거했다. 총무원 호법부장, 대흥사 주지, 제14 · 15대 중앙종회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흥사 조실로서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다.

남도를 대표하는 두륜산은 영축산과 흡사하다. 두륜산 정상에 누워 계신 부처님과 영축산을 지키는 적멸보궁이 다르지 않다. 그 앞에만 서면 얼었던 마음이 풀리고 만다. 넓은 품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쉬게 하는 것도 똑같다.

“전쟁을 비롯한 삼재가 미치지 못할 곳(三災不入之處)으로 만년 동안 훼손되지 않는 땅(萬年不毁之地)이 될 것이다.”

서산 대사의 말씀과 같이 두륜산과 대흥사는 한국불교의 법맥을 올곧게 이어가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서산 대사의 의발이 전수된 뒤 수많은 수행자를 배출한 명찰인 대흥사는 선교양종(禪敎兩宗)의 선해교림(禪海敎林) 면모를 갖춘 도량으로 발전해왔다.

“대흥사만한 곳이 없습니다”

넓은 산간분지에 자리한 대흥사는 다른 절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가람 배치를 보이고 있다. 절을 가로지르는 금당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으로 당우들을 자유롭게 배치했다. 또 서산 대사 추모공간인 표충사가 있는 별원구역까지 크게 세 영역에 전각들이 들어서 있다.

오랜만에 대흥사를 찾은 만큼 대웅보전과 천불전 등을 참배하고 조실 상월 보선 대종사(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의 주석처인 염화실(拈花室)로 향했다.

사람 좋은 미소를 보여주는 보선 스님은 “두륜산과 대흥사만큼 좋은 곳이 없다. 사계절 내내 그렇다.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은 곳이 대흥사”라며 먼저 당신이 손수 지은 글을 내밀었다.

“두륜의 기개는 남도의 하늘과 땅을 휘젓고 중생의 번뇌와 고통을 잠재웁니다. 두륜의 종주(宗主)인 청허 휴정(淸虛休靜) 선사께서는 대흥사에 주석하며 무상한 깨달음의 노래를 중생에게 남기셨습니다.

낮이면 한 잔의 차요, 밤들면 한바탕의 잠일세. 청산과 백운이 함께 무생(無生)을 이야기하네.

청허 휴정 선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은 무생입니다. 그리고 한바탕 꿈과 같습니다. 오늘의 모습도 내 모습이 아니고 내일의 모습도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생로병사의 무진행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윤회합니다. 두륜산 대흥사에는 생로병사의 윤회를 끊는 할과 방의 확철대오가 있습니다. 13대종사(大宗師)와 13대강사(大講師)의 선향(禪香)과 법향(法香)과 다향(茶香)이 머물고 있는 두륜의 품은 길 없는 길을 걷는 모든 중생들이 번다한 세속의 때를 씻을 수 있고 영원한 무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무생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80년 전에는 저것이 나이더니 80년 뒤에는 내가 저것입니다.”

오래 기다린 값인가? 스님의 첫 말씀부터가 심상치 않다. 이럴수록 필요한 것은 정면돌파였다.

“서산가풍이 활발발한 도량으로”

보선 스님은 다시 ‘서산가풍’을 강조했다.

“서산 대사의 의발이 전해진 것은 이곳이 당신의 법(法)을 이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사께서 묘향산에서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을 불러놓고 강조하고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불교가 가장 어려웠던 때인 조선시대에도 수행가풍이 살아 있었습니다. 정조 대왕이 이를 알고 대흥사에 표충사를 짓고 서산 대사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지도록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저의 은사이신 천운 큰스님께서 대흥사의 가풍을 다시 정립하셨습니다.”

“우리 삶은 무생, 한바탕 꿈 같아 두륜산 대흥사엔 생로병사 윤회를 끊는 할과 방의 확철대오가 있다”

보선 스님은 천운 스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천운 스님의 법을 이은 것도 당연했다. 천운 스님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보선 스님의 수행여정은 시작됐다.

“제 고향이 전남 영암입니다. 광주로 고등학교를 갔어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 다니고 방학 때는 내려와 고향집에서 지냈습니다. 방학이 되어 집에 가면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보냈더니 보다 못한 형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요. ‘도갑사에 큰스님이 계시는데 인사드리러 가자.’ 형님이 은사스님과 인연이 있었거든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도갑사로 소풍을 갔고 중학교 때는 큰 트럭을 타고 대흥사로 수행여행을 와서 절이 친숙했거든요.”

그렇게 보선 스님은 형님과 함께 도갑사로 갔다. 도갑사에서 평생의 스승 천운 스님을 만났다.

“은사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도인이 여기 계셨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승(高僧)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젊으실 때였는데도 안광(眼光)이 대단했습니다. 형님이 은사스님께 ‘이놈이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니 스님께서 좀 잡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는 집에 가버렸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허허’ 웃으시더니 미륵전에 있던 방을 하나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주 좋은 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선 스님의 ‘절 생활’이 시작됐다. “나름 익숙해서” 절에서의 생활은 어렵지 않았다.

“은사스님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3일 이상 절에 머물면 무조건 삭발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당연하게’ 깎았어요.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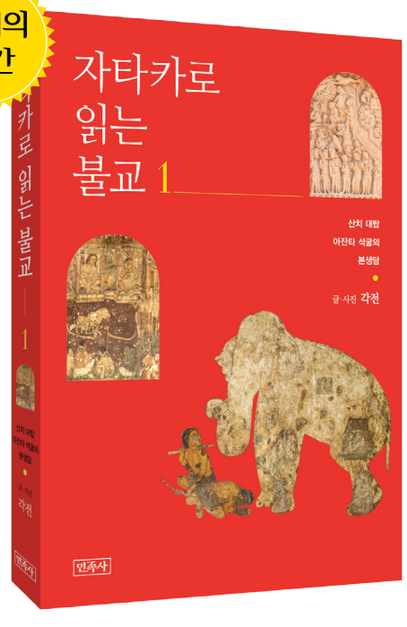
스님은 한 달 동안 그렇게 첫 ‘절 생활’을 했다.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다 방학이면 도갑사로 가는 생활이 이어졌다. 여느 때와 같이 절에서 생활을 하던 고2 여름방학 때 천운 스님이 스님을 호출했다.

“계(戒)를 받아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스님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라.” “스님 되는 것은 싫습니다.” “그럼 우선 사미십계(沙彌十戒)를 받고 생활하거라. 사미십계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婬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꽃다발을 갖지 말고 향수를 몸에 바르지 말라,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재비 하지 말며 가서 보고 듣지도 말라,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 돈과 금은보물을 갖지 말라 등이다. 만약 출가를 하지 않고 일반인으로 살게 되면 앞의 5계만 지켜도 된다.” “그럼 받겠습니다.”

13면에 계속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본생담 자타카로 읽는 불교 1

화제의 신간



글·사진 각전 | 350쪽 | 23,0000원

부처님의 본생담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책!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의 저자 각전 스님의 역작!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석벽에 그려진
본생담의 내용에 환희와 기쁨에 젖어들었습니다.
본생담의 스토리텔링의 힘은 대단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각전 스님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정치철학 전공)를 졸업하였다. 39회 행정고시 합격,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출가를 단행하였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 직지사 선원 등에서 정진하였으며, 대장경 천년 축전 해인사 준비위원, 〈해인〉지 편집장을 잠시 맡아 활동하다가 다시 선원으로 돌아와 수행, 국제적 안목을 넓히기 위해 미얀마의 쉐우민 국제명상센터에 다녀왔다. 현재 동화사,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 법주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으며, 수행의 여가에 법보신문에 ‘각전 스님의 본생담으로 읽는 불교’, 월간 불교문화에 ‘각전 스님의 부처님 성지 순례’를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